

제1절 광품1리(廣品一里)[속명: 너품, 원광품]

1. 마을의 자연환경

광품1리의 속명은 너품 또는 원광품이다. 동쪽은 합곡을 경계로 평해읍 신래 태봉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울곡산 부네골을 경계로 금천리 ‘음지마’와 닿아있다. 남쪽은 도부재를 경계로 후포리 삼울과 접하며, 북쪽은 광품교를 경계로 광품2리 평전과 닿아있다. 광품1리는 ‘원광품[자린곡]’, ‘안너품’, ‘바깥너품[수곡]’의 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들은 마을의 형국을 ‘마을 가운데가 낮고, 양쪽이 높아 배 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광품천에 ‘팔선대’라 부르는 명소가 있으며, 아계 이산해 선생이 남긴 ‘기성 팔경 팔선대’ 등 시와 기문이 전한다. 마을의 주산은 ‘울곡산’이며, 안산은 ‘광구재’이다. 마을회관은 2000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680년(숙종 6)에 김녕 김씨(金寧金氏)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할 때 마을 앞 강(江)물이 4계절(四季節) 끊기지 않고 흐른다고 하여 수곡(水谷)이라 하였다. 냇품마을은 마을 주위에 높이 여러 개가 있어 냇품이라 하였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광품리(廣品里)라 하였다. 1765년 무렵에는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노은리에 속했으며, 1808년에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광품리로 개칭하고, 1917년에 도계리를 광품리에 편입하여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로 재편했으며, 1971년에는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광품1리로 편제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46세대가 거주하며 봉화 정씨(奉化鄭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안동 김씨(安東金氏), 대흥 백씨(大興白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불선암(佛仙岩)

옛날에 자손(子孫)이 없는 사람이 바위에 가서 공을 들이면 자손을 낳았다 하여 불선암이라 한다.

2) 팔선대(八仙臺)

수정계(水精溪)에 큰 돌(大石)이 돌출하여 대(臺)가 되었는데, 그 형상(形狀)이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것과 같아 그 위에 수십 명의 사람이 앉아 놀 수 있고, 층층으로 되어 있어 올라가기가 편리하다. 옛날에 노인들이 거기에 올라가 장기를 두기도 하고 술을 마셨다 하여 팔선대(八仙臺)라 하며, 또는 군수가 제자 8명으로 하여금 유람케 하였다 하여 팔선대라 한다. 조선조 정치가로 기성면 황보리로 유배 온 아계 이산해 선생의 시와 기문이 전한다.

제2절 광품2리(廣品二里)[속명 : 평전(平田)]

1. 마을의 자연환경

광품2리는 평전, 도계[동막, 옹구동막], 새동막, 진깁빈, 지우들[뒤두들] 등 5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으로는 합수나들을 경계로 광품1리의 원광품과 접하고 서쪽은 오태산을 경계로 금천2리 진티와 닿아있다. 또 우거지골을 경계로 소태3리 하암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밤티골을 경계로 덕인1리 굴티와 접하며 북쪽으로는 잔디바우골을 경계로 평해읍 삼달2리와 접한다. 남동쪽은 베루끝을 경계로 광품1리와 닿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조리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다. 소태3리 하암마을과 경계 지점인 독발골 개골산에 암산을 뚫어 조성한 ‘굴보’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평전마을을 처음 일군 성씨는 야성 정씨(野城鄭氏), 또는 경주 이씨(慶州李氏)로 전하며 마을 주변에 야성 정씨 묘소가 다수 현존한다. 이후 김녕 김씨(金寧金氏)가 세거하였다. 마을 개척 당시 ‘큰 들(坪)이 있다’ 하여 평전(平田)이라 하였다. 1765년 무렵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노은리에 속했으며, 1808년에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도막리(陶幕里)로 개명되었다. 1912년에 도계리로 개명되었으며, 1917년에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로 재편되고,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광품2리로 분리, 편제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33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평택 임씨(平澤林氏), 영천 이씨(永川李氏),